

---

# 한자음의 변화와 ‘화냥’의 어원

김무림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1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지만 전통 사회에서 ‘화냥’ 또는 ‘화냥년’이란 말은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를 욕하여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 국어사전에서 ‘화냥’과 ‘화냥년’의 정의
  - 화냥: 「명사」 서방질을 하는 여자.  
【〈花娘〈만〉hayan】
  - 화냥년: 「명사」 ‘화냥’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화냥년〈박언〉←화냥[〈花娘〈만〉hayan]+년】

위의 정의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화냥’의 어원은 일차적으로 한자어 ‘花娘’에 있으며, 다시 한자어 ‘花娘’은 만주어 ‘Hayan[하얀]’에 그 어원이 있다는 것입니다.<sup>1)</sup> ‘화냥’의 어원이 만주어 ‘Hayan’에 있다고 하는 것은

---

1) 김형규(1962:15)에서 북선방언(北鮮方言, 평북과 함북 방언)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이며, 만주어 ‘Hayan’은 《만화사전(滿和辭典)》(羽田亨 1937)에서 ‘막련녀(莫連女), 음부(淫婦)’ 등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유래가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년)에 의한 것이라는 야담(野談)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만주족의 청나라 군사가 조선의 부녀자들을 겁탈하면서, 겁탈한 여인들을 'Hayan'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속설일 뿐입니다(김민수 편 1999:1194~1195, 조항범 2009:146~148, 김무림 2012:698 참조).

'화냥'이란 말이 조선 시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한자어 '환향(還鄉)'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역시 병자호란에 의하여 청국(淸國)에 끌려갔다 돌아온 조선의 부녀자들을 '환향년(還鄉+년)'이라고 비하하여 부른 데서 '화냥, 화냥년'이란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어 학습서인 《박통사(朴通事)》를 번역한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1677)에 '화냥년'이란 말이 나오며, 중국에서는 당대(唐代)의 문헌에 이미 '花娘'이란 말이 나타나므로, 만주족에 의한 병자호란과 '화냥'이란 말의 유래를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자어 '花娘'에서 온 '화냥'의 어원적 유래와 의미, 그리고 한자음의 변화에 따른 어휘 형태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2

당대(唐代)와 송대(宋代)의 중국의 문헌에 나타나는 '花娘/花孃'<sup>2)</sup>이란 말의 의미를 보면 '기생(妓生)'을 뜻하면서 특히 '가무(歌舞)에 능한 여자'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 단어가 애초부터 서방질을 일삼는 '음부(淫婦)'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명대(明代)의 문헌에는 '花娘'을 '창부(娼婦)'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말의 '화냥'에 가까운 의

---

2) '娘'과 '孃'은 같은 자(字)입니다.

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문헌에 사용된 ‘花娘’의 용례를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에서 간추려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의 문헌에 쓰인 ‘花娘’
  - 命花娘出幕 裴回拜客(唐)
    - 화낭(花娘)에게 막 밖으로 나가 있다가 손님을 절하여 맞으라고 명하였다.
  - 花孃十二能歌舞 籍甚聲名居樂府(宋)
    - 화낭(花孃) 12인이 가무에 능하여 명성이 자자한데 악부에 속하였다.
  - 世謂穩婆曰老娘 女巫曰師娘 都下及江南謂男覲亦曰師娘 娼婦曰花娘(明)
    - 세속에서 산파(產婆)를 노낭이라 하고, 여자 무당을 사낭이라고 하며, 도성 및 강남에서 남자 무당을 또한 사낭이라고 하고, 창부를 화낭이라고 한다.

특히 명대의 문헌을 보면 ‘노낭(老郎), 사낭(師娘), 화낭(花娘)’ 등과 같이 ‘娘’은 ‘여자’를 지칭하는 접미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화낭(花娘)’이 만주어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근대 국어 시기의 우리나라의 문헌에 사용된 ‘화낭년, 화낭이, 花娘’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 근대 국어 문헌의 ‘화낭년, 화낭이, 花娘’
  - 이 도적 화낭년의 난 나괴씨야(這賊養漢生的小龜精) 《박통사언해 하-25》
  - 養양漢한의디: 花娘 《역어유해 상-30》
  - 養양漢한의디: 화낭이 《방언유석 1-35》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에 ‘화냥년’이 나오며, 이후에는 한자어 ‘花娘’과 ‘화냥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어(漢語) ‘養漢’의 의미는 ‘서방질, 또는 그러한 사람’이므로,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화냥, 화냥년’에 해당합니다.

현대 국어 한자음에서 ‘娘’이 ‘냥’과 ‘랑’의 두 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花娘’을 현대 국어 한자음으로 읽으면 ‘화냥’이나 ‘화랑’입니다. 그러나 15세기 중세 국어 한자음에서 ‘花’와 ‘娘’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花’와 ‘娘’의 중세 국어 한자음
  - 花: 화 《훈몽자회 하-2》
  - 娘/孃: 냥 《훈몽자회 상-16》

그러므로 현대 국어의 ‘화냥’은 ‘花娘’의 중세 국어 한자음인 ‘화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한자어는 중세 국어(15~16세기)에서 근대 국어(17~19세기)로, 그리고 현대 국어(20세기 이후)로 이어지는 한자음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화냥’의 경우는 한자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세 국어 한자음에 의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화냥’이 고유어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花娘/화냥’이라는 어휘가 근대 한어(近代漢語) 이후의 중국어 구어(口語)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입니다.

한어사(漢語史)에서 ‘花娘’의 발음은 중고음이나 근대음이나 [hwa-njan]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花娘’이라는 한자어가 어느 시기에 국어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대 국어의 문헌에서 ‘화냥’과 함께 ‘花娘’이라는 한자 표기를 하고 있고, ‘화냥, 화냥년’에 해당하는 《박통사(朴通事)》의 어휘는 ‘養漢的’이라는 것을 참조하면 ‘花娘/화냥’이라는 한자어는 시대적으로 중고 한어(中古漢語)를

기반으로 하여 한자어로서 국어에 들어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무난할 것  
입니다. 특히 현대 한어(現代漢語)의 구어(口語)에서 '花娘'이라는 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花娘/화냥'이 근대 한어(近代漢  
語)의 구어를 차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냥'이란 말은 속어(俗語)에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아  
울러 '화냥년, 화냥이' 등과 같이 고유어 접미사와 어울려 쓰이면서 고  
유어와 같은 위상을 지니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  
하여 '花娘'의 중세 국어 한자음에 바탕을 둔 한자어 '花娘/화냥'은 한  
자어 위상을 잃으면서, 이후 한자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 3

지금까지 '화냥'의 어원과 함께 관련된 한자음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  
습니다. '화냥'의 어원은 한자어 '花娘(화냥/화랑)'에 있으며, '화냥'이라는  
형태는 중세 국어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花娘'이 현대  
국어 한자음에 구애받지 않고, 왜 '화냥'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근대 한어(近代漢語)의 차용이라기보다는 이 어휘가 고유어 위상을 획득  
함에 따라 정상적인 한자음의 변화에서 이탈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며,  
한어(漢語) 문헌에서 나타난 '花娘'의 역사를 고려하면, 국어에서 한자어  
로서의 '花娘/화냥'의 역사는 중세 국어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花娘/화냥'의 '娘'의 한자음이 '냥'에서 '냥, 량'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세 국어에서 한자음이 '냥'인 것은 '娘'과 '孃' 둘  
뿐이며, 이 두 한자는 반절(反切)도 '女良切'로서 서로 같고, 의미적으로  
도 서로 통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良'을 성부(聲符)로 하는 글자들

은 ‘浪(랑), 廊(랑), 郎(랑), 朗(랑), 狼(랑), 琅(랑), 螂(랑)’ 등과 같이 중세 국어 한자음이 모두 ‘랑’이며, 현대 국어 한자음도 ‘랑’입니다. ‘襄’을 성부(聲符)로 하는 한자는 ‘讓(양/양), 壤(양), 釀(양), 攘(양)’ 등과 같이 중세 국어 한자음이 ‘양, 양’이며, 현대 국어 한자음은 모두 ‘양’입니다. 성부(聲符)에 의한 유추 작용에 의하여 ‘娘/냥’은 ‘냥/랑’이 되고, ‘孃/냥’은 ‘양’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대 국어 한자음에서 ‘娘’이 ‘랑’ 외에 ‘냥’의 음도 갖게 된 것은 원래의 성모(聲母)가 ‘ㄴ’인 ‘냥’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花娘’의 한자음은 ‘화냥’에서 ‘화냥/화랑’으로 바뀌었으나, 국어의 어휘로서 ‘화냥’은 옛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고유어와 유사한 위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자음과 어휘 형태가 서로 엇갈리게 된 다른 어휘들은 ‘화냥’의 경우와는 반대로 어휘의 형태가 바뀐 결과에 의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假家/가가’에서 유래한 ‘가게’, ‘果實/과실’에서 유래한 ‘과일’, ‘滋味/자미’에서 유래한 ‘재미’, ‘躑躅/척촉’에서 유래한 ‘철쭉’, ‘初生/초생’에서 유래한 ‘초승’ 등등은 모두 한자음 형태에서 이탈하여 어휘 스스로 변화한 경우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한자어는 역사적인 한자음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중세 국어 ‘天地/턴디’에서 ‘천지’, ‘慈悲/즈비’에서 ‘자비’, ‘想像/상상’에서 ‘상상’, ‘惡臭/악취’에서 ‘악취’ 등등이 되는 것은 한자음의 변화에 따른 자동적인 형태의 변화에 해당합니다.

‘화냥’이란 단어는 한자음의 변화에 따르지도 않고, 또 스스로의 형태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원래의 한자음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한자음과 거리가 생긴 ‘화냥’이란 단어는 비록 그 의미에 있어서는 ‘서방질이나 하는’ 정절(貞節)이 없는 단어이지만, 어휘 형태에 있어서는 몇 백 년, 또는 그 이상의 시대를 견디며 절개를 지킨 지조(志操)가 굳은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화냥’이란 단어에도 존재의 명분은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문헌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김무림(2012), 《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교양.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김형규(1962), 《국어사연구》, 일조각.  
유창돈(1973),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조항범(2009), 《국어 어원론》, 도서출판 개신.  
21세기 세종 계획(<http://www.sejong.or.kr>): 한민족 언어 정보 검색.

- 기타 자료 문헌 및 사전은 본문을 참조.